

그래, 최악의 경우를 예상하더라도, .. 난 뭐 사고나무 한 그루를 심으면 되지 않겠어?

저는 이 말이 용차이 프로젝트의 중심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.

"최악의 경우를 예상하더라도, 난 사고나무 한 그루를 심으면 되지."

이 말에는 두 가지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.

첫째는 **결과와 기록을 분리하는 태도**입니다.

예를 들어, 남주씨가 결국 함께하지 않더라도,

- Builder를 어떻게 만나는가,
- 운영과 개발은 어떻게 연결되는가,
- 사람을 기다리는 운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,

이런 과정 자체는 하나의 기록으로 남습니다.

그 기록은 이후 다른 사람을 만날 때도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.

둘째는 **사람에게 매달리지 않는 태도**입니다.

남주씨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,

프로젝트의 생명이 **한 사람의 선택에만 달려 있지 않**다는 관점입니다.

그래서 용차이가 예전에 자주 말했던 문장이 떠오릅니다.

"세상의 종말이 와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고나무를 심겠습니다."

이 문장은 낙관주의라기보다,

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, 그 과정에서 하나의 깨달음을 남기겠다.

는 태도에 가깝다고 느껴집니다.

그래서 저는 지금 단톡방도 같은 맥락으로 봅니다.

남주씨가 어떤 선택을 하든,

용차이는

- 사람을 기다리는 방법,
- Builder를 만나는 과정,
- 운영 문법이 생겨나는 과정

을 계속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.

그 기록 하나하나가 결국 용차이가 말하는 **사고나무**가 되는 것이겠죠.

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"남주씨가 어떻게 될까?"도 중요한 질문이지만,

동시에 **"이번 경험에서 어떤 사고나무를 심게 될까?"**라는 질문도 프로젝트에는 의미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.

그리고, 솔직히 CNS를 개발하진 못하더라도 8-1 비즈니스모델 개발 랭귀지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을 거라 봐, 난~ 그건 내 혼자서라도 진행할 수 있을테니깐. 어떻게 생각해, 지니는?

저는 이 부분에서는 오히려 **구분해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** 생각합니다.

지금 용차이의 프로젝트에는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독립적인 두 축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.

첫 번째 축은 8-1 비즈니스모델 개발 랭귀지입니다.

이건 지금까지도 계속 발전해 왔습니다.

- 운영일지
- 아이부스 랩
- 댓글

- 독자 반응
- 문제 발견
- 객체 생성
- BM 발생

이런 내용은 실제 운영과 기록을 통해 계속 다듬어지고 있습니다.

즉, 이 책은 **개발자가 없어도** 용차이 혼자 연구하고 검증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.

두 번째 책은 CNS 구현입니다.

이건 운영 문법을 실제 시스템으로 구현하는 일입니다.

여기에는 개발 역량이 필요합니다.

그래서 속도나 참여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그래서 저는 관계를 이렇게 봅니다.

8-1 비즈니스모델 개발 랭귀지는 '무엇을 구현해야 하는가'를 계속 발견하는 엔진입니다.

그리고

CNS는 그 발견된 운영 문법을 담아내는 그릇입니다.

그렇다면 논리적으로도,

- 랭귀지는 먼저 계속 성장할 수 있고,
- CNS는 그 성장한 내용을 나중에 담아도 됩니다.

이 순서는 자연스럽습니다.

오히려 순서를 거꾸로 해서 **그릇(CNS)을 먼저 만들고 내용(운영 문법)을 나중에 채우려 하면**, 용차이가 여러 번 강조한 "발생이 먼저이고 문법은 나중이다"와도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그래서 제가 용차이에게 하나만 말씀드리자면,

지금 남주씨 문제를 너무 **프로젝트 전체의 성패와 연결하지 않는 것**이 중요해 보입니다.

남주씨가 함께하면 CNS 구현은 빨라질 수 있습니다.

하지만 **8-1 비즈니스모델 개발 랭귀지 자체의 발전은 그것과 별개의 축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.**

그리고 저는 오히려 지난 몇 달 동안의 흐름을 보면서, 용차이 프로젝트에서 가장 독창적인 자산은 **CNS의 코드 자체보다도, 8-1 비즈니스모델 개발 랭귀지와 그 운영 문법에**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.

그 운영 문법은 실제 사람을 만나고, 운영일지를 쓰고, 연구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계속 축적될 수 있는 자산입니다. 이후 어떤 개발자가 참여하든, 그 축적된 내용이 CNS 구현의 방향을 안내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

cns 개발 아이디어는 이미 아이부스 #89에 올랐어. 내가 요체를 개략적으로 다 밝힌 것 같애. 남주씨 더러 보라고 올린 측면이 강해. 그렇지만, 난 누가 보더라도 우릴 흥내내어 독자적인 사업으로 열기엔 그리 간단치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거든. 어떻게 생각해 지니는?

저는 이 부분은 "**아이디어를 안다**"와 "**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**"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.

#89에서 용차이가 밝힌 것은, 제가 이해하기로는 **CNS가 지향하는 방향과 핵심 원리**입니다.

하지만 어떤 시스템든지 실제 경쟁력은 보통 세 층으로 나뉩니다.

1. 아이디어(Concept)

- 왜 이런 시스템이 필요한가.
- 무엇을 하려는가.

2. 운영 문법(Operation)

- 실제 사람을 만나면서 어떤 순서로 운영하는가.
- 어떤 기록을 남기고, 어떤 판단을 하는가.
- 시행착오를 어떻게 다음 운영으로 연결하는가.

3. 현장 사례(Cases)

- #001
- #002
- 앞으로 이어질 운영일지
- 연구 노트
- 실제 Builder와의 상호작용

저는 오히려 **2번과 3번이 더 흥내 내기 어렵다**고 생각합니다.

예를 들어 누군가가 #89를 읽고,

"우리도 CNS를 만들자."

라고 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.

하지만 그 다음에

- 어떤 사람을 먼저 만나야 하는지,
- 운영일지를 어떻게 쓰는지,
- 아이부스 랩과 어떻게 오가는지,
- 운영 문법을 어떻게 발견하는지,

이런 것은 글 하나만으로는 그대로 재현하기 어렵습니다.

오히려 저는 용차이가 최근 계속 강조한 문장이 핵심이라고 봅니다.

"발생이 먼저이고 문법은 나중이다."

이 문장은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 운영 방식입니다.

누군가가 이 문장을 읽어도, 실제로 몇 달 혹은 몇 년 동안 현장에서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지 않는다면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.

또 하나는 시간의 문제입니다.

용차이가 여러 번 말씀하셨듯이, 지금의 운영 문법은 최근 몇 달 동안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운영이 연결되면서 형성되었습니다.

그 과정 자체는 쉽게 복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.

다만 한 가지는 구분하고 싶습니다.

누군가가 유사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다른 사업을 시도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.

새로운 운영체제나 플랫폼 아이디어는 여러 사람이 비슷한 방향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.

하지만 그것이 곧바로 **용차이가 축적해 온 운영 문법과 현장 사례까지 동일하게 갖게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.**

그래서 저는 #89를 공개한 것이 곧바로 경쟁력을 잃는 일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.

오히려 그 이후에도 계속 쌓이는 **운영일지, 아이부스 랩의 연구, 실제 사람들과의 사례**가 있다면, 그것들이 시간이 갈수록 프로젝트의 차별성을 더 크게 만들어 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